



지기 포장 변천

Changes of Paper Packaging

五十嵐 誠 / 포장관리사

1. 서론

판지를 이용한 지기의 역사는 오래전 전쟁 전부터 선물상자 등 관혼상제의 답례품, 보석, 시계, 만년필 등 고급 상품의 날개 포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장식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소비자 포장으로서의 지기를 중심으로 그 변천을 서술하고자 한다.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 법률의 시행,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와 함께 패키지도 변화해 왔다.

1. 지기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지기 패키지의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기에 인쇄되고 특정한 형태, 사이즈로 뚫어서 gluer로 붙이고 접은 상태로 납입된다.

그 후 손으로 조립하거나 각종 포장기계로 내용물을 자동적으로 충전, 봉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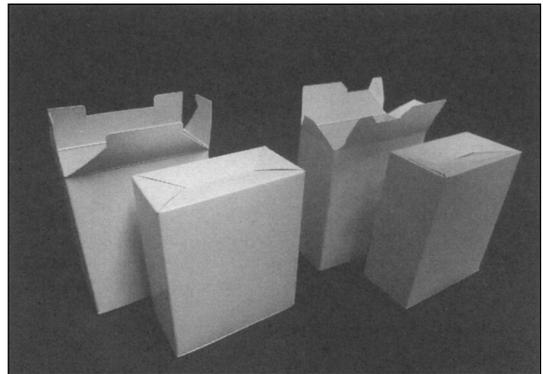
[사진 1]은 손으로 조립하는 구조 형태이고 [사진 2]는 주로 자동 충전되는 형태이다.

특히 [사진 2]의 4매 플랩의 기본 구조를 축으로 형태의 차별화(디스플레이 효과), 개봉 방법, 상품 내용물을 꺼내는 방법, 재봉합, 폐기성 등을 고려하면서 지기 구조 설계가 실시되고 있다.

2. 패키지 시스템 도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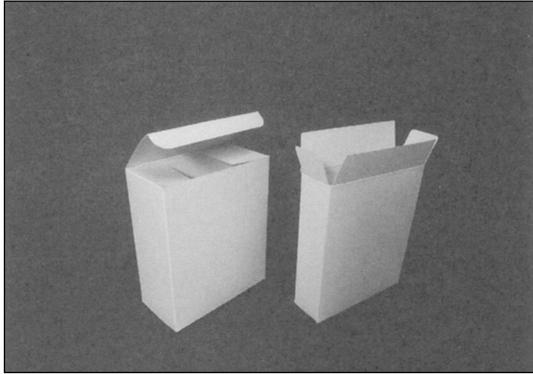
여기서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보면 몇 가지 토 픽이 있다.

[사진 1] 손으로 조립하는 구조





[사진 2] 자동 충전 형태



[사진 3] 다양한 종이 포장



사라졌던 패키지, 모습을 변형해서 살아남은 패키지가 있다. 1950년대 후반 검은 음료 코카콜라가 일본에 상륙했다. 독특한 형태의 무거운 유리병으로 물론 왕관 뚜껑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나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들고 운반하기 쉬운 6병이 들은 캐리어 카톤이다. 원터치로 조립이 가능하고 파병방지 구조도 있어 핸들부분은 4중으로 겹쳐 충분한 강도와 들기 쉬운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복잡한 것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용지는 내수성, 강도가 우수한 장섬

유의 내추럴 크래프트 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접는 방법 붙이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는 미국에서 그 패키지를 수입했었다. 지금은 대용량 PET병이 되어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위한 지체 멀티팩 시스템이 1960년대 미국에서 각종 도입되었다. 즉 클러스터 팩(Cluster-Pak), 막스맨(MARKSMAN), 자켓 팩(Jak-et-Pak) 등이다. 당초 일본에서는 맥주 6캔, 청량음료 4캔 팩으로 채택되었는데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헬스드링크 10병들이 골판지 대체 유통용 패키지로서 보급했다. 그 외 술의 원컵 스타일 1열5병 팩 등에도 채택되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작금의 맥주 관련 눈부신 상품 전개에 따른 슈퍼마켓에서는 6캔 팩이 산적되어 있다. 지체 멀티팩은 반세기가 넘어 크고 활짝 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카토닝 시스템이 도입되어 고도 성장 시대에 즉응한 합리적인 포장 라인을 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된 것은 스웨덴에서 스프린터(Sprinter) 시스템, 미국에서 Kliklok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상품의 생산 스피드에 순응해 각종 제한기와 봉합기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고속으로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량, 충전기는 일본 국산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특징적인 것은 1매의 판지를 폐물은 평평한 상태로 납입되어 로트에 의해 제한해 충전, 봉합된다. 기존의 붙여서 납입했던 것과 비교해서 제한 금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포장 형태, 구조의 배리에이션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 생산된 스낵 과자 등 가게 앞에서 볼 수 있다.

3. 리사이클법의 대응

1973년 제 2차 오일쇼크로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석유 관련 플라스틱 재료가 입수 곤란하게 되었다. 컵 누들 용의 2중 플라스틱 성형 용기의 외측을 지체의 트레이로 급히 막은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일시적인 것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1987년 콤팩트 세제의 출현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농축 세제를 위한 소량으로 편리해서 환영 받았지만, 포장 자체 납입업자에게 있어서는 강한 타격이었다.

패키지계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1995년의 포장용기 리사이클법으로 포장 자재로서의 종이는 리사이클성, 재자원화의 면에서 다른 소재와 비교해서 우위로 플라스틱에서 종이에의 물결이 크게 넓어졌다.

카메라나 소형 가전제품의 칸막이 등은 대부분이 플라스틱 성형품, 발포 스티롤에서 종이 칸막이로 대체 되었다. 쓰레기의 총량 삭감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타입의 리필용기가 제안되었다.

배리어성이 우수한 일본 술의 플랫폼 스타일의 종이 용기에 샴푸, 린스를 채워서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현재는 스탠딩 파우치가 대체 용기로서 정착되어 있다. 한편 치약 튜브는 작은 상자에 들어 있었는데 튜브의 뚜껑을 크게 해서 디스플레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은 상자는 폐지되었다.

시장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서는 컵라면, 컵

된장국, 컵 스프 등의 단열 컵 일 것이다. 가격이 싸고 단열 기능이 우수한 발포 스티롤 용기를 여러 가지 기법을 구사해서 개발해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

II. 결론

장기화하는 저성장 시대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코스트 삭감. 새로운 설비 자체도 여의치 않다. 시장에서는 안심, 안전, 고품질, 환경, 액세서블 패키지(배리어프리), 키즈디자인 등등 갖가지 요구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문자로 하거나 말로 하지 못했던 것뿐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현재는 용기 CAD/CAM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어 여러 가지 포장 형태는 숙련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개별의 세부에 걸친 대응은 필요로 한다.

이후로는 외관과 만지는 느낌, 개봉감, 쓰레기로써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 등 감성에 소구하는 패키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